

# 삼성SDI, 웨어러블 시장선점 기대

## 스마트밴드용 커브드배터리 출시 ... 용량 5배 늘려 <기어 핏> 채용

삼성SDI(대표 박상진)는 세계 최대 용량 210mAh의 스마트밴드용 커브드(Curved) 배터리를 출시했다.

4월11일 글로벌 출시한 삼성전자의 <기어 핏(Gear Fit)>에 탑재된 커브드배터리는 기존 스마트밴드용 배터리에 비해 5배 가량 용량이 확대돼 웨어러블(Wearable) 기기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삼성SDI 관계자는 “초소형 배터리 셀에 적층기술을 적용해 웨어러블 기기에 적합한 커브드 디자인을 구현했다”며 “뿐만 아니라 신기술 V-벤딩을 사용해 에너지 밀도를 높여 용량을 늘리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웨어러블 기기의 심장 역할을 하는 배터리 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클라우드(Clouding) 기반의 웨어러블 시대가 한 층 앞당겨졌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ABI에 따르면, 웨어러블 기기는 2013년 5300만개에서 2018년에는 4억8700만개로 10배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하며 스마트밴드는 2013년 3200만개에서 2018년 1억1600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2018년에는 헬스케어 기기가 1억1000만개, 스마트워치가 9200만개, 스마트글래스가 7500만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웨어러블 기기 가운데 스마트밴드가 25%로 점유율이 가장 크고 헬스케어 기기가 22%, 스마트워치가 19%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4/15>